테마칼럼 | 여성세계 | 정치브리핑 | 경제의 눈 | 문화 향기

美의 신화

김신명숙
〈작가〉

늘 타인의 승인을 받아야 안심하는 불안한 미인보다는, 평범한 모습이라도 타인의 시선 같은 건 신경 쓸 여지 없이 자신의 일과 삶에 뜨겁게 몰입해 있는 여자가 훨씬 더 아름다워 보이는 법이다.

이탈리아 밀라노 패션쇼에서 깡마른 모델들이 퇴출당한다고 한다. 이탈리아 청소년부와 국립패션협회가 내년 1월까지 지나치게 마른 모델이 무대에 서는 것을 금지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합의했기 때문이다.

전세계적으로 여성들이 비정상적으로 마른 몸매를 원하는 것은 그래야 미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왜 말라야만 미인이 될 수 있는지 성찰해 볼 겨를조차없이.

미국의 나오미 울프는 '미의 신화'(1991)라는 책에서 갈수록 강화되고 있는 미의 이상은 페미니즘에 대한 반격의 도구로서 여성들의 자존감을 낮추려는 정치적 의도를 감추고 있다고 주장했다. 여성해방과 여성의 미 사이에는 일정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이다.

"여자들이 점점 더 법적 물질적 장애물들을 헤치고 나아갈수록 여성미의 이미지들은 점점 더 엄격하고 무겁고 잔인하게 우리들에게 부과돼왔다. 지난 십년동안 여성들은 권력구조를 깨뜨렸으나 그러는 동안 섭식 장애는 급격히 늘어났고 성형수술은 가장 빠른 성장세를 보인 분야가 됐다.

말라야만 미인이 될수 있는가

미국여성들은 어떤 다른 목표보다도 10-15파운드의 살을 빼는 쪽을 택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역사상 어느 때보다도 더 많은 여성들이 더 많은 돈과 권력, 영역, 법적인 인정을 획득했으나 우리가 우리자신을 육체적으로 어떻게 느끼는가 하는 점에서는 우리는 아마도 우리의 해방되지 못한 할머니들보다 더 나쁜 상황에 처해 있을 것이다"

울프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2기 여성해방운동이 막 분출하던 1960년대 후반 '보그'지는 갑자기 여성의 몸에 초점을 맞춰 과거에는 크게 존재하지 않았던 '문제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했다고 한다. 1968년에서 1972년 사이 다이어트 관련 기사들은 무려 70%가 늘어났다는 것이다. 다이어트 강박증에 걸렸던 영국 다이애나 비의 치료를 맡기도 했던 심리치료사 수지 오바흐 역시 '지나치게 마른 미인상의 등장 시기는 여성운동의 세력화 시기와 정확히 일치한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맥락에서 보자면 미국여성들이 참정권을 얻은 1920년에 미스 아메리카 대회가 시작됐다는 사실도 의미심장하게 느껴지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오늘날 완벽한 미인의 이미지들에 매일같이 융단폭격을 당하며 살고 있는데 그 이미지들이 보여주는 미인의 기준은 점점 더 도달하기 어려워지고 있다.

미인의 기준이 비현실적이 되면 될수록 자본주의와 가부장제는 더 이익을 얻게 된다. 기형에 가까운 소수를 제외한 모든 여성들을 미인이 못된다고 규정할수록 외모를 가꾸는 산업의 시장규모는 커질 것이고, 더 많은 여성들이 건강을 해칠 뿐 아니라 에너지와 자원을 삶의 긍정적인 목표를 위해 쓰지 못한 채 자신에 대한 불안과 불만족에 낭비함으로써 여성파워는 그만큼 위축되게 되니까. 울프가 보기에 미의 신화는 여성적인 특성과 행동의 규칙들에 대한 숱한 거짓말들 중에서 가장 최후의 것이자 가장 위험한 것이다. 무엇보다 여성들이 스스로 자신을 어떻게 느끼는가 하는 문제에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도록 하는 데 성공했으므로.

가장 최후의 것이자 위험한것

다른 어떤 정체성보다 우선 미인이 되고 싶어하는 여성들의 욕망은 '미인은 타고 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라는 외모관련 산업의 부추김 때문에 더욱 증대되고 있다.

그러나 아름다움이란, 특히 생명력을 갖고 계속 유지되는 아름다움이란 키나 몸무게, 이목구비의 생김새 등 신체의 형상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다. 흔히 외모와 내면을 이분법적으로 구분하지만 그 둘이 별개인 것도 아니어서, 일례로 신념과 열정, 생명력에 가득 차 반짝이는 눈은 외모만도 내면만도 아닌, 그 둘을 아우르면서 존재 전체를 한순간에 드러내는 강렬한 아름다움인 것이다. 아무리 생김새가 세상이 말하는 미인의 기준에 가까워도 늘 타인의 승인을 받아야 안심하는 불안한 미인보다는, 평범한 모습이라도 타인의 시선같은 건 신경 쓸 여지 없이 자신의 일과 삶에 뜨겁게 몰입해 있는 여자가 훨씬 더 아름다워 보이는 법이다.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주소,전화번호를 써주십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34/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의료 칼럼

조 태 영

우리는 '자기 PR이 미덕'인 세상에 살고 있다.

아무리 영화를 잘 만들어도 홍보·마케팅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개봉관조차 잡기 힘든 것이 사실이다. 자동차 회사들은 튼튼한 자동차를 만들어 놓고도 수십억원을 투자해 각종 이벤트·마케팅을 준비한다. 이제 소극적인 마케팅은 성공을 약속하지 않는다.

그래서 요즘 아이들은 어려서부터 '웰 메이드'(well made)임을 알리기 위한 훈련에 들어간다. 초등학교에 입학하기도 전 영어를 배우고, 음악·미술 학원을 쫓아다니느라 바쁘고, 운동도 잘해야 하고, 좋은 학교에 입학하기 위해 경쟁도 치른다. '경쟁력있는 사람'이 되기 위함이다.

이처럼 성공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소가 '외모'가 돼버렸다. 외모는 상대에게 나를 각인시키는 가장 중요한 요소다. 물론 이목구비가 바비인형 같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눈빛·자세·피부의 톤·말하는 억양도 외모에 포함된다. 모 대기업의 입사 면접에는 관상학자가 등장할 정도로 이목구비의 조화·인상은 중요시되고 있다.

미용성형은 어떤가? 역시 마케팅의 일환이다. 화려한 경력도 나를 알리는 수단이지만, 만나는 사람마다 내 이력서를 보여줄 수는 없기 때문이다.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 것도, 세련된 화법을 익히고 매너를 갖추는 것도 여기에 포함된다고 하겠다. 세계에서 가장 공격적으로 활동한다는 미국의 CEO들도 요즘은 성형수술이 필수라고 한다.

성형 사실을 당당하게 밝히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다. 화장을 하는 것처럼 내 외모의 약점을 당당하게 수정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졌기 때문이다. 간단한 조치로 개선할 수 있는데, 굳이 콤플렉스를 방치할 필요가 있을까?

특히 '눈빛'은 첫 인상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다. 눈 사이가 멀어서 답답해 보이는 것은 첫 인상에서 비호감형으로 전락할 수 있다. 얼굴에 커다란 점이 있는데 계속 달고 다니는 것도 마찬가지다. 요즘엔 몇 분만 투자하면 간단하게 제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코가 심하게 휘었는데도 이를 방치하면 부정적인 이미지를 줄 수 있다.

성형수술, 당당하게 합시다

요즘에는 '쁘띠 성형'이 유행하고 있는데, 짧고 간단한 수술로 일상생활에 빠른 복귀가 가능하면서 몰라보게 아름다워질 수 있는 이 수술에 젊은이들은 열광하고 있다. 친구들과 함께 방문해 상담을 받고, 친구들과 수술 부위·정도 등에 관해 상의한 후 병원을 나서는 전문직 여성들을 가끔 본다. 일에도 열심이지만 외모도 잘 가꾸며 현대 여성의 이미지를 가로 짓는 이들이, 극심한 외모 콤플렉스를 가지고 '자연 외모'라며 위안짓는 여성보다 더 당당하다.

'자기 PR의 시대'에서 상대에게 나를 최상의 상태로 적극 보이는 것은 중요하다. 현대 의학의 발달로 더 간단하게 됐다. 바야흐로 성형은 화장의 연장이고, 마케팅의 일환이다.

〈메디필 성형외과 원장〉

독자마당

행정기관, 흉물스런 불법 옥외광고 단속 철저히해야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현수막 등 광고물을 부착하는 것 외에 불법으로 가로수, 전신주, 교통 안내 표지판, 육교 등에 내걸리는 현수막이 수없이 많다.

지정 게시대에는 워낙 많은 현수막이 걸려 있는데다 사람들 눈에 잘 띄는 곳에 설치된 게시대를 제외하면 광고 효과도 크지 않은탓에 가로수나 전신주 등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현수막 양도 워낙 많아 오늘 내걸린 현수막이 내일 또다른 현수막에 밀려 버려지고, 이 현수막으로 인해 가로수와 전신주가 훼손되고 흉물스럽게 변한 가로수와 전신주도 상당하다.

광고물 제작 업체는 현수막을 게첨한 뒤 기간이 지나면 스스로 수거해야 하지만 이마저도 하지 않고 있다.

광고물 제작협회는 업체 스스로 현수막 문화를 정착시키도록 하고 구청 등 행정기관에서는 불법 현수막을 설치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 ▲김재준·광주시 동구 계림동

왼손잡이를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는 시각 없어졌으면

나는 왼손잡이다. 얼마전 여자친구와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 나이 지긋해 보이는 60대 아저씨가 옆에서 나를 보며 "왼손으로 밥먹는데, 요즘 젊은이들은 쯧쯧 가정교육이 잘못 됐어" 라고 하는 말을 우연히 들었다.

나를 아주 몰상식하고 배운 것 없는 사람으로 대하는 것 같아 황당했다.

태어날때부터 왼손잡이인게 무슨죄가 된단 말인가.

그렇잖아도 전부 오른손잡이용 가위나 대학 책상, 생필품 등으로 받은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다. 너무 속상했다.

지난해 캐나다 밴쿠버에 있는 한 대학에 갔을때 그곳 강의실에 왼손잡이용 책상이 오른손잡이용 책상과 함께 놓여져 있었던 것을 본 적이 있다.

모든 강의실이 똑같다고 했다. 하지만 내가 다니는 대학에는 왼손잡이용 책상이 없다.

외국에서처럼 왼손잡이를 위한 시설이 갖춰지기를 바라지는 않는다. 다만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는 시각만 없어졌으면 한다.

▲김낙형·광주시 북구 양과동

병원 주차요금, 환자·보호자 상황 고려해가며 징수해야

아이가 수술을 받기 위해 큰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서 아이 엄마는 보호자 침구류, 옷가지 등을 운반하기 위해 입원 당일 오후 병원 주차장을 이용했다.

그런데 내가 퇴근길에 아내가 주차해둔 차를 빼내려고 하니 8천500원의 주차료를 내라는 것이다. 입원 당일 4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초과분에 대한 주차료를 내야 한다고 했다.

병원측 설명대로 주차시간 4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려면 승용차로 아이를 입원시킨 뒤 아이를 혼자 두고 차를 다시 집에 가져다 놓아야 한다.

집에서 병원까지 승용차로 1시간 30분 이상 걸리는데, 주차비를 내지 않으려면 최소 3시간 이상 아이를 병원에 혼자 내버려두라는 것으로밖에 이해할 수 없었다.

직장에 다니는 사람이 일하다 말고 나와서 차를 가져갈 수도 없는 노릇이니 대리 운전자를 불러야 하는 것인가. 주차 요금 징수 방식도 환자 보호자들을 고려해야 한다.

▲김만석·광주시 광산구 서봉동

◇ 채택된 원고는 고료 드립니다.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만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고료도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사 설

광주시의회 인턴보좌관제 왜 고집하나

광주시의회가 일부 시민단체의 물리적 저지로 인해 유급 인턴보좌관제 도입을 추진하기 위한 관련 예산을 처리하던 계획을 다시 유보했다. 시의회는 14일 본회의를 열어 유급 인턴보좌관제 관련 예산 1억7천640여만 원을 포함해 2조3천277억여 원의 내년도 광주시 예산을 처리하려 했으나,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본회의 입장을 저지하는 바람에 회의 자체를 열지 못했다.

이에 따라 광주시의 내년도 예산이 지난 8일에 이어 처리되지 못하는 초유의 사태까지 발생했다. 광주시 의회가 왜 여론의 반발과 예산안 처리 파행을 감수하면서까지 보좌관제 도입에 목을 매는지 이유를 모르겠다.

행자부는 전국 시·도와 의회에 "인턴보좌관제 도입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을 고려할 때 적절하지 않다"고 통보한 바 있다. 현행법상 위법이다는 것이다. 따라서 서울시의회는 보좌관제 도입 조례안을 폐기했고 전남도를 비롯한 전북·충북도의회 등 타시·도 의회도 인턴보좌관제도입을 유보했다. 그럼에도, 광주시의회만이 보좌관제 도입을 강행하려는 것은 법과 시민을 무시한 오만한 행동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광역시·도의회가 도입하려는 인턴보좌관제는 초법적 발상일 뿐 아니라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보좌관의 보수가 건강보험 등 4대 보험을 포함해 월 100만 원에 불과해 전문성을 갖춘 인력 배치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정책생산 등 의정활동 보좌역이 아닌 의원들의 잔심부름이나 자료복사, 배포 등 개인비서 역할에 머물 공산이 크다는 것이다.

광주시의회는 인턴보좌관제를 도입하기 전에 의원 개개인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노력부터 기울이는 게 순리다. 그리고 보좌관제가 꼭 필요하다면 우선 시민 공감대부터 형성하고, 그 후 국회를 상대로 법률개정 운동을 벌어야할 것이다.

성탄절 '비리경제인' 사면 신중해야

성탄절을 앞두고 경제인들에 대한 특별사면설이 흘러 나오고 있다. 청와대는 아무 것도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지만 사면이 단행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 5단체는 이달 초 청와대에 불법 정치자금과 과거 분식회계 등과 관련돼 처벌받은 기업인에 대한 특별사면·복권 청원서를 냈다.

경제단체들이 내세운 명분은 사면을 통해 기업인들의 의욕을 되살려 투자활성화를 도모하자는 것이다. 사면대상에는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과 박용성 전 두산그룹 회장, 장진호 전 진로그룹 회장, 최원석 전 동아그룹 회장 등 분식회계 관련자들과 고병우 전 동아 건설 회장 등 불법 정치자금 관련자들이 포함돼 있다. 이들을 사면하면 국민대화합과 경제활성화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경제인, 특히 재벌총수의 비리에 대한 사회의 시선은 싸늘하다. 총수들이 저지른 비리에 비해 법원의 양형이 상대적으로 가벼운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온 것을 부인할 수 없다. 오죽하면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비아냥이 끊이지 않고 있겠는가.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14일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이 특별사면 3관왕 등극을 눈앞에 두고 있다"며 사면설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1995년 광복절 특사, 1997년 개천절 특사 혜택을 받은 김 전 회장이 다시 사면 대상에 포함된 점을 겨냥한 것이다.

경제인에 대한 사면이 불가피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극히 예외적으로 적용돼야 한다. 사면권이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지만 남발하면 법치주의의 근간이 흔들리게 된다. 그렇지 않아도 노무현 대통령은 취임 이후 몇 차례의 정치인 사면에서 드러나듯 사면권을 남용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경제활성화를 내세워 비리경제인을 무더기 사면하면 국민의 사법불신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無 等 鼓

연말연시를 앞두고 주요 기업들의 승진인사 발표가 한창이다. 이사급인 임원은 '기업의 별'이라고 한다. 삼성그룹의 경우 이사가 되면 연봉·집무실·업무추진비·후생복지 등 70여 가지가 부장급 때와 달라진다고 한다.

하지만 임원은 '임시직원'이라는, 자조적인 뜻으로도 통용된다. 대기업들은 매년 임원의 10% 이상을 물갈이한다.

'피터의 원리'

승진 인사의 뒤란에는 쓸쓸히 짐을 싸서 퇴장하는 다른 한 무리가 있다. 떠나는 이들은 대부분 '무능한 사람들이 승진하고, 악화(惡貨)가 양화(良貨)를 구축(驅逐)하는 직장 내 모순'을 탓한다.

그렇다면, 샐러리맨들의 성공과 좌절은 어디에 달린 것인가? 미국 콜롬비아대학교 로렌스 피터(Laurence J. Peter) 교수와 작가 레이먼드 헐(Ramond Hull)은 위계 조직의 메커니즘에 주목했다. 그들은 1969년 펴낸 〈피터의 원리〉(The Peter Principle)에서 "모든 종업원들은 자신의 무능력이 드러날 때까지 승진하려는 경향을 보인다"고 지적했다.

능력 밖의 지위까지 올라간 사람은 '성실함'(?)으로 자신을 감춘다. 끼니를 거르며 일하고, 서류를 들고 퇴근한다. '종이 공포증' '문서 중독증' '책상 기피증' '전화 중독증' '도표 집착증'과 아무 의미없이 말만 길게 하는 '만연체 증상' 등은 무능함이 표출하는 다양한 행동양식이다. '미련하면서도 부지런떠는 상사가 최악'이라는 말과도 일맥상통한다.

이런 조직 구조를 견디다 못해 스스로 책상을 정리하는 사람도 나온다. 무능력한 사람이 앞길을 막고 있으니, 장애가 없는 곳으로 옮겨야 한다는 '피터의 우회(迂廻)' 논리에 따른 것이다.

피터 교수는 승진에 급급하기보다 유능한 구성원으로 남을 수 있는 자리에 머무르는 게 더 큰 만족감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한다. 인사철을 맞아, 자신의 '능력 한계'를 냉철히 자문(自問)해 볼 시점이다. /정기태 사회1부장

meonsan@kwangju.co.kr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 許宰皓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禎榮 논설실장 金東永 편집국장 申港樂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00-500·222-811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www.kwangju.co.kr
편집국안내 〈대표FAX 222-4918〉 편 집 부 2200-629 정 치 부 2200-616 경 제 부 2200-617 사 회 1 부 2200-618 〈F A X 222-4267〉
사 회 2 부 2200-619 〈F A X 227-0118〉 문화생활부 2200-626 여론매체부 2200-628 체 육 팀 2200-627 사 진 부 2200-690 조 사 부 2200-570
총 무 부 2200-511 〈F A X 222-8005〉 광 고 국 2200-521 〈F A X 227-9500〉 디 자 인 2200-536 사 업 2 부 2200-552
문화사업국 2200-541 〈F A X 222-0195〉 판 매 부 2200-551 〈F A X 227-9500〉 서울지사 02-773-9331 〈F A X 02-773-9335〉
※구독료 월정 8,000원 1부 4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